

## News & Issue

### 뉴스와 쟁점

# 마약범죄와의 전쟁: 멕시코 10년의 기억

박수경

마약카르텔, 마약밀매, 조직범죄. 최근 멕시코 일간지 표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단어이다. 손가락을 꼽아보니 그 ‘최근’은 10년째가 되었다. 멕시코행 비행기 표를 끊으려는 사람은 꼭 한 번은 물어본다. 멕시코가 위험하다는 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10년 전쯤에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속으로 발끈했다. 그래도 다 사람 사는 곳인데요(한국에서는 왜 유독 그런 사건만 보도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위험하다는 곳에서 저는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같은 질문을 받으면 생각이 많아진다. 위험하지요. 외국에서 지켜야 할 기본 안전수칙은 지키면서 지내세요. 그래도 신문이나 뉴스만 보지 않으면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혈기가 왕성한 친구들에게는 ‘자중하며 지내길 바라며 ‘위험’을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해준다). 위험한 곳이니 가지 말라고 말리기에는 멕시코는 너무나 풍성한 곳이다. 그렇다고 여행자의 들뜬 마음에 장단을 맞추어 주려니 개운치가 않다. 아침에 커피 한잔과 함께 펼쳐보는 신문에서 쏟아지는 납치, 살해, 변사체, 난도질, 머리가 잘린, 시체 구덩이 같은 단어를 보고 망연하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

2006년 12월 11일 갓 대통령으로 취임한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은 미 초아칸 지역의 마약밀매단 소탕을 위해 연방경찰과 함께 군대와 해군을 투입하는 것으로 ‘전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10년이 되었다. 그 해 멕시코 땅을 처음 밟았던 나는 몇 년 간의 멕시코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고, 그

해 5월 공권력과 시위대의 충돌로 두 명이 사망한 아텐코(Atenco) 사건의 책임자로 비난 받던 페냐 니에토 멕시코 주 주지사는 이제 대통령이 되었다.

신중해지기는 했지만 전임 대통령의 마약범죄 대처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마약 밀매단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10여 개 주요 마약 카르텔의 122명의 두목 체포에 나섰다. 임기 절반이 지

난 2016년 현재 122명 중에 80명은 체포되었고, 14명은 사망했다. 이제 28명이 남았다. 그 과정에서 거대 마약밀매단인 ‘태평양 카르텔’의 두목 중 한 명인 호아킨 구스만(별명은 ‘차포’)도 검거했고, 마약 거래뿐만 아니라 잔혹한 범죄로 악명 높은 로스 세타스(Los Zetas)의 주요 범죄자를 검거하여 세력을 약화시켰다.

그러면 이제 한숨을 돌려도 될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2016년 2월 통계에 따르면, 멕시코 전역에서 매일 55명이 피살된다. 마약범죄건수는 2012년과 비교해 48%가 증가했다. 2015년 12월 15일에는 멕시코시티 국제공항 제2터미널 보안검색대에서 여행용 가방 5개에 담긴 코카인 250kg을 적발했다.

아직 잔당이 남아 있는 탓일까? 멕시코가 위험지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언론의 피상적인 보도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경찰이 우리 아파트 창문 밖을 서성이며 주차된 차량을 살펴보고 있었다. 곧이어 연방경찰 픽업트럭이 도착하고, 어린아이 키만 한 카빈을 든 연방경찰이 주변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창문을 열고 손을 뻗으면 카빈을 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그 때 처음으로 구체적인 상상이 시작되었다. ‘만약 그 카빈에서 총알이 나오면 우리 집 창문으로 날아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얼마 후, 연방경찰은 견인차량과 함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렇게 어느 날 오후의 구



멕시코 주요 일간지를 채우는 마약범죄 기사

경거리는 끝이 났지만, 그 무렵에 처음으로 총에 맞는 꿈을 꾸었다.

아군과 122명의 적. 국가와 범죄단체 가운데 누가 이겨야 하는지도 명백한 이 전쟁. 그런데 공권력과 마약밀매단 사이에 그어진 전선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공권력이 시민의 편인지도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군인이 민간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일부 공권력은 마약밀매단과 공공연한 밀착관계를 유지했다. 이제 공권력이 마약밀매단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느냐 마느냐, 마약밀매단이 공권력에 맞서며 ‘얼마나 더 잔혹해 지는가’ 등의 문제가 아니었다. 몇 명을 체포했고, 잔당이 얼마나 남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약전쟁의 흔적이 사회에 어떤 자국을 남기고 있는지가 문제였다. 그 흔적은 폭력의 일상화와 공포였다.

폭력이 일상화되었다거나 사회구성원이 공포와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은 단순히 총격전과 무력충돌의 누적된 수치를 반영하거나 사회분위기를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출발한다. 그 구체적인 상황 속으로 떠밀려 들어갔을 때, 폭력 행사자가 국가인지 마약밀매단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폭력의 행사란 본래 한 덩어리로 뒤엉켜 끈적거리는 것이다. 아군과 적군을 나눌 수 있는 때는 전선을 가운데 두고 대치하고 있을 때다. 한 덩어리로 뒤엉키고 나면 이미 그것은 폭력이라는 구체적인 현장이다. 국가의 폭력 독점이란 그 뒤엉킴을 사전에 차단하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미 뒤엉켜버린 뒤에 할 수 있는 질문은 ‘누구인가’가 아니라 ‘왜냐’는 것이다.

10년 전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은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마약밀매단 퇴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째, 멕시코가 마약수출국에서 소비국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 둘째, 마약밀매단이 극성을 부리며 폭력이 급증했다는 점, 셋째, 마약밀매단이 정부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 가운데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로스 세타스의 등장으로, 특히 2006년에 극심해진 미초아칸 주의 폭력 상황이었다.

미초아칸 주는 마리화나 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외진 산악지대인 탓에 1940년대부터 마리화나 재배농민, 마약거래상, 지역정부의 공모와 묵인 속에서 수십 년 간 ‘평화롭게’ 마약을 생산하고 유통시켰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일상적 소비재이던 마리화나가 어느 날 불법이 되었어도 마리화

나는 여전히 땅에 심으면 결실을 맺는 사랑스러운 작물이었고, 마약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후에도 이 작물을 둘러싼 사회관계는 별다른 충돌 없이 유지되었다.

산골마을 농민에게는 지갑을 채워주는 환금 작물이었고, 멕시코의 마약거래상은 가난한 이웃과 친지에

게 몹쓸 짓을 한다는 불편한 진실과 대면할 필요 없이 두둑한 돈주머니를 가진 매입자를 만나려고 미국의 국경을 향해 출발하면 그만이었다. 단속 책임이 있는 지방정부와 경찰은 가끔 마리화나 재배지를 불태우거나 압수하는 동시에 적당한 선에서 눈을 감아주었다. 이들은 미국에서 흘러들어오는 돈의 수혜자였다는 점에서 부패한 공무원이었지만, 지역민의 경제활동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지역 유지이기도 했다.

그러나 1980년대로 들어서며 마약은 더 이상 친근한 작물은 아니라 외국에서 제조된 하얀 가루 코카인으로 변해갔다. 이제 태평양에 접한 항구를 끼고 있던 미초아칸은 코카인이 지나가는 통로의 역할을 했다. 불법이긴 했지만 지역 특산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마약은 이제 번창하는 국제적 사업 품목이 되었고, 그 알짜배기 품목을 둘러싸고 마약밀매단 사이에 분열과 다툼이 이어졌다. 미국이라는 시장은 점점 더 커져갔고, 미국 정부의 규제가 심해지는 만큼 더 큰 보상이 따랐다. 2006년은 로스 세타스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정부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이, 로스 세타스를 견제하며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신생조직 미초아칸파가 등장하면서 폭력으로 얼룩졌다. 국가는 그제야 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그 방안은 처방전이 아니라 무기였다.

어쩌면 정치드라마로 끝날 수 있던 사태를 공포물로 바꾼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의 성급한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 분석이다. 2006년 7월 대통령 선거에서 펠리페 칼데론은 0.5포인트 차이로 막강한 상대후보 로페스 오브라도르를 제치고 당선자가 되었지만, 부정선거 의혹이 끈질기고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맥



미초아칸 주 (출처: www.google.co.kr)

시코시티 시장을 역임한 좌파정당의 후보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대통령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조직적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부정선거라는 유령을 떨쳐내기 위해 펠리페 칼데론 신임 대통령은 무기를 들었다. 마약밀매단을 향해 치켜든 무기라고 했지만 사실상의 표적은 선거 결과에 들쭉이는 정국이었고, 그 무기에 짓눌린 것은 마약밀매단이 아니라 멕시코 사회였다. 2007년 이후 멕시코에서 중요한 사회 쟁점은 마약밀매단과의 충돌에 휩쓸려 사라지기 일쑤였다.

한번 뽑아 든 칼은 휘둘러보기 마련이다. 마약범죄 소탕의 필요성을 실제로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가와 무관하게 첫 번째 문제는 무기를 들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무기가 섬세한 작업에는 그다지 유용하지 못한 둔탁한 도구였다는 것이다. 멕시코에서 마약밀매단은 자기 세계를 구축했고, 그 세계는 우리의 세계와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마약밀매단의 세계는 우리 세계 위로 포개진 세계였다. 그런데 정부가 동원한 무기는 그런 세계를 걷어내기에는 지나치게 뭉툭하고 뻗뻗했다. 사실 범죄자와 선량한 시민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기도 했다. 꽤 많은 수의 선량한 시민이 직간접적으로 마약 산업과 연계되어 생계를 유지하거나 마약 산업의 호황에 기대어 극심한 경제적 곤경을 타개할 수 있었다.

마약밀매단이 사회에 침투할 수 있었던 것은 20세기 초반부터 2000년까지 70년 간 지속된 제도혁명당의 일당체제에서 기인한다. 멕시코혁명이 마무리되고 제도혁명당의 국가 통제가 유지되던 1930년대부터 1985년까지 약 50년 동안 마약밀매단은 정치인의 비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고, 제도혁명당의 그늘 아래 있었던 지역정치인 역시 때로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약밀매단을 활용하는 등 협력과 공존의 시대를 보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1985년 이후 제도혁명당의 약화와 함께 찾아온 멕시코의 정치적 민주화는 마약밀매단이 활보할 수 있는 기회였다.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있던 마약밀매단은 정치적 지형의 변화 속에서 홀로서기에 성공했으며, 이합집산을 통해 새로운 단체로 재탄생했다. 흔들리고 있던 제도혁명당의 정치권력은 이러한 마약밀매단의 재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마약밀매단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힘도 상실했다. 더구나 2000년 제도혁명당에서 국민행동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

지면서 마약밀매단과 정계의 은밀한 관계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마약밀매단은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시작했다. 2006년 정부가 뽑아 든 무기는 마약밀매단을 다시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지도 못했고, 자의든 타의든 마약밀매단에 협조하던 공모 세력을 분리해내지도 못했다. 오히려 사회와 마약밀매단은 더욱 밀착되어 갔는데, 점점 악화되고 있던 경제적, 사회적 조건은 마약밀매단이 사회라는 토양에 뿌리내리는 데 좋은 거름으로 작용했다.

그 거름에서 자라난 독초는 결국 2014년 9월 26일 밤 아요트시나파(Ayotzinapa) 교원대 학생을 집어삼켰다. 게레로 주 이구알라 시 인근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43명 실종사건’으로 부르지만, 2014년 9월 28일 사건이 처음 기사화되었을 때만해도 43이라는 숫자는 등장하지 않았다. 다섯 명 또는 여섯 명의 사망과 20여명의 부상자 소식이 전부였다. 처음에는 일상화된 피살 사건인가 싶었는데, 곧 지역 경찰이 학생들이 탄 버스를 향해 총격을 가한 사건임이 밝혀졌다.

하루가 다르게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경찰이 43명의 학생을 ‘연합 전사’(Guerreros Unidos)라는 마약밀매단에게 넘겼고, 조직원은 43명을 살해한 후 시신을 소각하여 강에 버렸다. 경찰은 이 사건이 이구알라 시 시장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 했다.

희생된 학생들은 멕시코에서 열리는 1968년 10월 2일 틀랄텔콜코(Tlateloco) 학살사건 추모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버스 다섯 대를 강탈했고, 100명에 이르는 학생이 여러 대의 버스에 나누어 타고 있었다. 그러나 100명의 학생 대부분은 그 주에 입학한 1학년이었다. 시장 부인이 주최하는 만찬 장소 근처로 그 버스 가운데 한 대가 지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자, 시장은 경찰에게 버스를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그 곳에서 시장 부인은 다음 시장 선거에 입후보할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길을 막은 경찰과 학생들이 대치하던 중에 경찰이 발포했고,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크게 다쳤다. 일부 학생은 자리를 피했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경찰에게 납치당했다(체포가 아니었다).

한 시간 후 현장에 도착한 것은 경찰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탄 버스였고, 그들이 현장을 살펴보는 도중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들이 두 번

째 충격을 가했다. 이 충격으로 또 다시 두 명의 학생이 사망했다. 같은 시간, 이 구알라 시를 빠져나가는 고속도로에서 경찰은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버스를 학생들의 버스와 혼동하여 다시 공격했고, 그 자리에서 15살의 축구선수, 버스



43명의 빈자리 (출처: www.tribunanoticias.com.mx)

운전사,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택시의 손님이 사망했다. 경찰이 데려간 43명은 마약밀매단에게 넘겨졌고, 마약밀매단 직원들은 43명을 살해하여 쓰레기장에서 시신을 소각했다고 실토했다. 경찰에 명령을 내린 시장은 마약밀매단을 비호하던 정치인으로 밝혀졌다.

우연과 필연이 만들어낸 이 비극을 부르는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증언을 바탕으로 검찰이 밝힌 것과 달리 43명이 살해당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과 멕시코 사회는 여전히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전부터 수도 없이 발견되었던 암매장터는<sup>1)</sup> 사건 직후부터 43명 학생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관심을 받았지만, 암매장터마다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결국 2015년 1월 검찰은 관련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코쿨라 쓰레기 소각장에서 학생들의 시신을 소각했다는 최종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2015년 9월 6일 전문가와 희생자 가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검찰의 조사결과와 대치되는 해석을 내놓으며 전면적인 재조사를 요구했고, 연방검찰은 사건을 왜곡 은폐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016년 2월에는 미주기구 산하 인권위원회가 멕시코 연방검찰의 협조 부족과 멕시코 정부의 진실 왜곡을 비판한 데 이어, 지난 4월 6일 결국 협조 중단을 통보했다. 잇따라 4월 8일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학은 쓰레기 소각장에서 수집한 증거물이 희생자들과 유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발표해서 멕시코 검찰의

1)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게레로주와 타마울리파스주를 중심으로 164개의 암매장터에서 587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신뢰도는 더욱 떨어졌다.

43명을 사망자로 불러야 할지 실종자로 불러야 할지 망설이는 사이 4월 22일 두 가지 소식이 전해졌다.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형법과 보건위생법을 개정하여 1인당 마리화나 28g까지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대마와 마리화나를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사용도 허가하겠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를 ‘마약’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바라보는 입장으로 선회한다는 이 발표는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마리화나 합법화라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취하겠다는 결정이다.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무조건 금지에서 효율적인 예방과 규제로의 전환”이라고 마약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표현했다. 같은 날 신문의 다른 면에는 반부패법안을 둘러싸고 상원에서 벌어진 정당 갈등이 기사화되었다.

마약밀매단의 범죄와 부패가 뒤엉켜 만들어낸 폭력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간 5명의 사망자와 43명의 학생이 우리에게 지난 ‘전쟁’에 대해 다시 묻는 사이, 결국 전쟁이란 승자 없이 상처만 남길 뿐이라는, 이미 잘 알려진, 그리고 누누이 거론된 교훈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채 10년 만에 멕시코 정부는 무기를 내려놓고 다른 해결책을 찾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이 직접적으로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지난 10년 동안 멕시코 시민사회가 그토록 간절한 목소리로 주장하던 폭력의 양산이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제언에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일상생활에 덧씌워진 범죄단체의 생리와 폭력을 걷어내기 위해서 부패와 격렬한 다툼을 겪어내야 할 차례이다. 그 다툼을 제대로 겪어내지 못한다면 마약밀매, 카르텔, 조직범죄와 같은 단어는 사라질지언정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단어, 그러나 같은 의미를 지니고, 같은 메커니즘을 움직일 대체어는 언제 다시 등장할지 모른다.

---

박수경 —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강사